

시가총액, 한화 올라에 SK는 안도

증권선물거래소, 한화 29%에 SK 5% 감소 ... 10대그룹 47조원 증발

최근 급락장세가 진행되면서 한달도 채 안되는 사이에 10대그룹의 시가총액 가운데 47조원 가량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룹별로는 한화, 두산, 한진, GS, LG그룹 등의 순서로 시가총액 감소율이 큰 반면 SK그룹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그룹 시가총액 감소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감소율	감소금액
한 화	-29.62	12,228
두 산	-25.02	21,893
한 진	-20.6	10,664
GS	-19.12	12,942
LG	-18.08	74,474
삼 성	-14.96	221,623
현대자동차	-13.75	60,270
롯데	-13.51	25,145
현대중공업	-11.67	11,960
SK	-5.16	18,182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11일 322조1519억원에 달했던 10대그룹 시가총액은 6월8일 275조2138억원으로 46조9천381억원(14.57%) 감소했는데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인 118조2500억원의 39.6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룹별로는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이 29.62% 줄어듦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고 이어 두산이 25.02%, 한진이 20.60%, GS가 19.12%, LG가 18.08%, 삼성이 14.96% 줄어드는 등 평균 감소율을 상회했다.

반면, SK그룹은 5.16%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현대중공업이 11.67%, 롯데가 13.51%, 현대자동차가 13.75% 줄었다.

시가총액 감소액은 삼성그룹이 22조1623억원에 달한 가운데 LG는 7조4474억원, 현대자동차가 6조270억원, 롯데가 2조5145억원, 두산이 2조1893억원, SK가 1조8182억원, GS가 1조2942억원, 한화가 1조2228억원, 현대중공업이 1조1960억원, 한진이 1조664억원의 순서이다.

한편, 10대그룹에 대한 외국인의 시가총액은 22조3004억원(16.10%)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비중도 43.01%에서 42.24%로 0.7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3>